

밖이 아니라 안을 볼 일입니다. 안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의 긴 행렬이 자유의 길이 됩니다.

- 성전스님 -

진단검사의학과,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매우 우수’ 최고 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지난 6월 17일 진단검사의학재단이 실시한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로 2년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심사는 검사실 운영·진단 혈액 등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 지침, 인력, 환경, 안전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05년 개원 이후 13회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검사실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2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최고 등급을 놓치지 않은 것은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신뢰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처음 방문도 편안하게, ‘첫 방문 안내 창구’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병원을 처음 찾는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첫 방문 안내 창구’를 운영한다. 1층 의무기록 창구 옆 12·13번 창구에 마련된 안내 창구에서는 신환 접수 및 진료 절차, 진료과·검사실 위치, 의무기록 발급 및 수납 등 병원 이용 전반을 안내한다. 또한 첫 방문 내원객에게는 전용 목걸이를 제공해 원내 교직원들이 쉽게 식별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첫 방문 안내 창구’ 운영을 통해 처음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부 PEM 위원회, ‘환자의 마음을 여는 간호, 3-Pre(미리)’ 캠페인 전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 PEM 위원회는 2025년 ‘먼저 다가갑니다’ 캠페인에 이어 올해는 ‘환자의 마음을 여는 간호, 3-Pre(미리)’를 주제로 환자경험 향상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처치예고, 시간안내, 경과설명’, 즉 ‘미리 알려주고, 미리 설명하고, 미리 안내하는 간호’이며,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궁금증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환자경험평가의 주요 요소인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여 환자에게 보다 긍정적인 의료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간호 PEM 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의 공감과 소통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간호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간호 문화를 완성하고, 환자경험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관건립불사에 1,080만원 회향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은 지난 6월 2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기부자 라운지에서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1,080만 원(10평)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불사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명성스님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병원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고자 소중한 정재를 회향했다. 백용해 병원장은 “명성스님의 귀한 자비원력과 보시공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향해 주신 뜻을 받들어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의료를 실천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병원 4층 중강당을 명성스님의 법명을 딴 ‘명성세미나실’로 운영하며 자비원력과 보시공덕을 기리고 있다. 또한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불사를 통해 미래 100년을 향한 자비의 의료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